

영국에서 온 편지

진영종 선교사 | Email: jin.terry@gmail.com | Tel: +44 7909 330 145

진정한 교회연합

지난 사순절 기간에 진선교사는 5주간 동안 성경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주제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선택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모임에 벅스힐 교회 교우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 교단 소속 6개의 교회들로부터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성경공부는 매우 활기차고 은혜스럽게 진행되었고, 보다 가을에 있을 성경공부에도 모두 참석하기를 원한다는 피드백과 함께 마쳤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다함께 모여서 신앙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파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큰 장벽이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에 밀려 그 존재감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교회의 연합은 목표가 아니라 생존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공부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같이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표면적으로는 느끼다 그 생각되었지만, 보다 실제적인 현실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되라고 하신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K 차세대들을 위한 사역

유럽에서 사역 중인 본 교단 산하 선교사역자들의 모임인 예장유럽선교회(Euromission PCK)에서 오랫동안 임원으로 사역했던 진선교사는 지난 2년간 특별히 선교사자녀(MK)들을 위한 사역을 선교회 내에서 감당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장 신실한 선교동역자들이 이 MK들은 실상은 가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로써, 각종 상처와 아픔으로 실제로는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마저 발생하는 일들이 있곤 하였습니다.

진선교사는 특별히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들이 아픔을 이기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소통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예장유럽선교회에서 MK들에게 자신의 삶의 내용을 그림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현조하였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들을 모아서 출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선교현장에서 매우 큰 울림이 있었으며, 이들이야말로 지금까지 가장 든든한 선교조력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선교사역을 이어서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예비 선교동역자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는 중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배당 보수 및 증축을 위한 몸부림

현 위치에서 최초로 교회건물이 지어진 지는 벌써 13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도 원래의 그 목적은 본전(本殿)을 지원하는 부속건물로서 건축했으며, 교회 앞 너른 마당에 멋진 본전 건물을 지으려 100년부터 시도해 왔습니다. 그 때에



시작한 이 건축 프로젝트는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같은 마을에 있는 동 교단 산하의 다른 교회와 합병되면서, 두 교회의 힘으로 위의 사진에서 보는 교회마당에 신 예배당 건축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되자마자 금융위기가 전 유럽을 뒤덮어버려, 합병된 다른 교회예배당을 매각하여 그 금액으로 새로운 합병된 교회건물을 지으려던 계획은 교회 건물이 매각되지 못함으로써 10여년 이상을 좌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선교사가 부임하던 해에, 원래 건물가의 1/3에 해당되는 헐값으로 결국 매각되었고, 그 금액마저도 올 해 말까지 사용목적을 포함한 건축계획서를 시노드에 제출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연로한 교우들은 이마 15년 가까운 건축과의 씨름으로 지칠대로 지친 상태이며, 이 건축 프로젝트마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좌초된다면 그야말로 동력을 잃을 것이며, 마치 더이상의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음을 고지 받은 말기환자처럼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200 이상의 역사를 뒤로하고 결국 폐쇄되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보아왔기 때문에, 마치 늘 환자에게 종말을 고하던 의사가 이제 자신의 종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듯, 씁쓸하면서도 그나마 마지막 용을 쓰려고, 올 해 말까지 건축안을 통과시키려 몇몇 장로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푸념하시는 교우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서 교회를 끝낼 수 없기에 그 목적으로서 건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위도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시노드에서 통과만 된다면, 지역의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턱없이 부족한 제정을 채워야할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주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번 건축 프로젝트는 교회 역사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거 발생한 고령교우들의 소천

지난 연말부터 거의 매달 한 명씩 90세 이상의 고령교우들이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심방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지나간 그들 삶의 궤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97세의 덕 할아버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20살에 영국으로 넘어와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하신 입지적인 분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그의 아내도 20년 전에 떠났는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김선교사, 신학과정 다시 시작

김유경 선교사는 영국연합개혁신교단(URC)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캠브리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신학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선교사는 25년 전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선교사가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 봉사로 나가고 임신과 육아로 안수를 미루다가, 곧이은 영국으로서의 선교사역지 이동, 그리고 설 새 없이 이어진 사역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안수를 미뤘습니다.

25년만에 50대 중반의 나이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뿐더러, 기숙사에서 살면서 보낸 지난 1년간의 수업과정은 크나 큰 스트레스이면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한 재확인 작업으로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김선교사는 앞으로 2년 더 신학공부를 하고, 또 다른 1년간의 목회실습을 교회에서 한 후에 안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김선교사가 캠브리지로 풀타임 학업을 위해 떠나면서 김선교사 혼자서 집에 남겨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돗개 찰리가 함께 있어 하루에 두 번씩은 가까운 동네 산책을 꼭 나감으로써 루틴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지금껏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2. 복음의 핵심 가치로 초기화된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만 전심일주할 수 있도록
3. 계획 중인 교회건물 확장사역을 위한 건축허가가 시노드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또한 시노드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건축지원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4. 건축사역에 대한 재정이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이를 위한 모금사역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것이 순전히 이뤄지도록.
5. 백스힐 인근 지역에 젊은이 사역이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아울러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지혜가 허락되도록.
6. 복음과 선교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더욱 불타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육체와 영적 강건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인격체로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7. 캠브리지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김유경 선교사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사에게 주님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소명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김유경 선교사와 명, 현의 진로,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제목과 보내 주시면 저희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도록 힘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참미예수!

영국에서 진현, 진명, 김유경, 진영종 드림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스쿠터를 타고 교회에 간신히 오시는 분이지만 코로나 기간에 자신이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든가 좋아 하겠으니 무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멤버로 가입하여 특별 예배도 드렸고, 그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교회에 출석할 수 없어, 가정에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성찬을 집례하기도 했습니다만, 몇 주를 못이기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93세의 할머니는 어린나이에 소아마비 장애를 얻어 보행이 늘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평생을 걸스카우트와 여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노년에는 몇 차례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져야했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원심방을 갔더니, 그간 열심히 살았다면서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하시기에 진심을 다해 안식을 위해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는 그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오신 분이기에 장례의 모든 절차를 김선교사가 책임지고 교회에서 다 치뤘습니다.

리즈 할머니는 92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즈 할머니도 김선교사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심방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심방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10년 전에 보내고 잊지 못하셨던 리즈 할머니는 교회에서 가장 교양스러운 멋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10살 차이나는 남동생 부부가 찾아와서 장례를 부탁하고서는, 모든 일정이 마친 후에 더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지난 번 보고에 언급해 드린 바 있는 올 해로 만 99세인 팜 장로님은 작년까지 주일예배 때 교회 스크린에 예배순서를 프로젝트하시며 봉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87세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주 주보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 할 때에는, 컴퓨터로 만드는 방법을 잊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실제로 하지도 않는 슬라이드를 매주 혼자 집에서 만드신, 교회의 가장 어른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종이셨습니다. 지난 주에 갑작스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셔서 그 길로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뤄드릴 예정입니다.

교우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잃는 것이 더욱 큰 데미지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쓸쓸한 바닷가, 그곳에서 바라본 석양...

이제 올 해의 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입니다. 매년 분기가 찾아오면 선교편지를 써서 사역을 보고해야 합니다만, 이곳에서의 사역은 제3세계권에서의 사역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역사들도 없고, 그저 챗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들 뿐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한 내용 외에 늘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내용들을 한국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은 어느 선교사님들에게도 남아 있을터일 것입니다만, 점점 더 쇠약해가는 영국교회와 사라져가는 교우들의 마지막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입장에서는 선교보고라는 것 자체가 더 더욱 쓸쓸하기만 합니다.

‘유럽에서 선교하는 것이 무슨 선교’냐는 소리를 20년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스스로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기식감이 찾아옵니다. 교리적이나 선교신학적인 명목적이고 허울 좋은 답변 말고, 지금 이 땅, 이 언덕에서 이곳을 지켜야 하는 주님의 그 위탁의 말씀의 참 뜻을 만들 수 있는 답변 말입니다. 꼭 교인들의 대단한 회심의 사건들이나 역사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어도 그저 묵묵하게 선교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만이라도 이곳에서는 중요한 선교사역 가치라는 점을 알고 이를 통해 또 하루를 버텨보지만, 오늘도 아무도 없는 바닷가 언덕에 서서 석양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여쭙어 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합니까? 제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으며, 배는 고프는데 입맛이라곤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고,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 이 땅에 내가 있어야 할, 아니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우울증에 빠진 것인가요, 주님? 원래 말 수가 적으신 분인줄은 압니다만, 이따금씩은 제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혹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울게 하소서!”